



사천시보

<http://www.sacheon.go.kr>

10
2015년 10월 1일
NO. 234

FAX : 055)831-6012, E-Mail : shgongbo@korea.kr

발행인 사천시장 / 발행처 사천시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 편집 공보감사담당관 / 전화 055) 831-2215 / 1996년 1월 25일 창간



제11회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2015.10.08^{THU} ~ 10.11^{SUN}
사천비행장 일원

제10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블랙이글스 에어쇼장면

☞ 주요 지면안내

02

제11회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막

04

제15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05

전통시장(읍시장, 중앙시장, 용궁시장) 축제

08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와 SNS 친구맺기

- facebook.com/risingsacheon
- story.kakao.com/#ch/sacheoncity
- twitter.com/risingsacheon

볼거리·체험거리 가득한 항공우주축제 개막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10.8(목)~11(일) 4일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11회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산 최초의 항공기 부활호의 제작 발원지이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시’에서 열린다.

경상남도과 사천시, 공군제3훈련비행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공동 주최하는 항공우주엑스포는 ‘사천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다시찾은 조국 하늘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의 시범비행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 사천에서 생산된 초음속기 T-50B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조국의 하늘 아래서 멋진 곡예비행을 펼치고,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대한민국 공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군 역사관, 아리랑 플래쉬몹, 나라사랑 홍보캠페인 등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에어쇼를 비롯한 체험비행, 항공기 전시 등은 사천비행장에서, 국제항공우주기술킴포지엄은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축하공연과 전국모형항공기대회는 사천종합운동장, 국제신비차대회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공군 군수사령부와 함께 ‘항공부품 견본 전시·상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부품 산업 육성과 항공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항공부품 견본 전시·상담회는 국산화 주요 개발품목 및 군수품 상용화 대상품목 설명, 정비능력 개발 및 개발절차, 시험평가 절차/사례 등 설명회, 항공부품 견본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

관람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에어쇼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사천비행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그 중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이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사천 하늘 일대를 수놓아 창공으로 높이 솟았다가 폭포수처럼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따로따로 방향을 트는 아찔한 묘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엑스포에서 보여주는 블랙이글팀의 에어쇼는 1시간 가량 풀 버전(full-version)의 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며, 지상에서의 이륙 준비에서부터 착륙까지 모든 진행



블랙이글에어쇼



엑스포행사장 전경



항공기 포토존

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에어쇼 종료 후 조종사들의 사인회도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영국에서 개최)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대상과 관객 인기상을 휩쓰는 한편 2014년 2월에는 아시아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인 “싱가포르 에어쇼 2014”에 공식 초청을 받아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5,400km 떨어진 싱가포르까지 장거리 항법비행으로 날아가 조종사들과 T-50B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였다.

사천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오는 10월 6일 오전부터 사천비행장 상공에서 축하비행 지원을 위한 사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 기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인근 지역주민 및 축산농가 등은 주의를 당부했다.

■다양한 기종의 항공팀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시범비행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 항공전문팀의 다양한 에어쇼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가 금년에도 관람객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것이다.

부활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군용기로서 한국전쟁 중인 1953년 6월 사천의 공군기지에서 개발이 시작되어 그 해 10월에 시험비행을 성공하였다. 이후 연락, 정찰, 심리전 등의 다목적 항공기로 사용되었던 부활호는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2004년 대구 경산고에서 부활호의 뼈대를 발견하여 복원되었고, 2009년 경남테크노파크와 사천시 주도로 개량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대를 제작하였다.

공군에서는 국내생산 항공기인 KT-1 및 T-50 시범비행, 전시탐색구조시범, 고공강하 시범 등을 보여줄 계획이다. 전시탐색구조시범은 항공기가 적과의 교전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 했을 때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구성한 것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탐색구조전문부대 시범을 보여줄 계획이며, 공군 고공강하시범은 16명의 공군 특수임무요원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도 2,100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려 자유낙하 후 저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쳐 지정된 지점에 착지하는 고난이도의 시범이다.

민간 항공팀에서는 한서대학교의 EXTRA 330LT와 씨웨스트항공의 S2B 항공기가 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국내 유일의 화려한 민간 곡예비행을 보여줄 것이다. 2014년 최초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곡예비행을 선보인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박수복 원장은 청소년들에게 항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친근감을 주기 위해 재능기부로 곡예비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씨웨스트항공도 같은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멋진 곡예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3면에 계속>



부활호 탑승체험



항공우주 홍보체험관

체험비행 확대·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

■엑스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체험비행 확대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항공기 체험비행이 올해에도 열린다. 공군 수송기 체험비행, 대학항공기 체험비행, 경량항공기 지상활주체험, KT-1 시뮬레이터 체험은 엑스포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여 규모를 확대키로 하였다. 엑스포 사무국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사전접수를 받았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대학항공기/경량항공기 지상활주/KT-1시뮬레이터 체험은 현장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며 약 1천여명에게 비행의 꿈을 실현시켜 추억으로 선물할 것이다.

공군 수송기 체험비행은 평소 쉽게 탑승하기 힘든 수송기를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아 마련되는 행사로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소음지역 피해 주민과 어려운 계층 사람들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색다른 행사이다.

전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대학항공기 체험비행'은 한서대 비행교육원, 청주대 비행교육원, 교통대 비행훈련원의 3개 대학교 항공기를 타고 비행원리 설명 및 남해안 일대를 하늘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체험비행 프로그램으로 탑승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경량항공기 지상활주체험"도 운영된다. 지상활주 체험에 운용되는 경량항공기는 항공레저 스포츠로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연구가 증가하는 소형 항공기로서 엑스포 행사장에서 운영되는 지상활주 체험은 조종사의 비행원리와 항공기 설명을 듣고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10여대의 경량항공기가 기차모양처럼 꼬리를 물고 사천비행장 활주로를 달리고 기념촬영을 하는 체험이다.

'KT-1 시뮬레이터 체험'은 실제 KT-1 비행을 하는 착각이 들 만큼 완벽하게 재현되는 시뮬레이터(가상현실장치)를 이

용, 체험 전 참가자들은 간단한 비행교육을 받은 후 시야를 가득 채우는 돔 스크린 안에서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기능의 비행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비행은 사전에 예약한 관람객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항공기에 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실제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다.

■미래의 항공꿈나무들을 위한 항공대회의 홍보·체험관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서는 자라나는 미래의 항공 꿈나무들을 위한 다양한 항공관련 행사로 각종 항공대회와 산업체·교육기관의 홍보·체험관 프로그램이 기획된다. 항공대회는 항공시뮬레이터 에어레이싱대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항공과학 글짓기, 국제신비차대회가 운영된다.

항공 시뮬레이터 에어레이싱 대회는 국산 최초의 양산기인 KT-1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조종하여 사천 팔경을 배경으로 정해진 코스를 최단시간에 도는 기록경기대회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10월 11일 본대회가 운영되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이벤트대회로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사천비행장 내 홍보체험관 특별대회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대회 입상자들은 상장과 부상이 제공되고, 이벤트 대회는 매일 상위 기록자를 선정하여 푸집한 상품도 줄 계획이어서 항공시뮬레이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관람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월 10일(토) 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전국모형항공기 대회는 기존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자유비행과 함께 전동비행기 자유비행 종목이 신설되어 3개종목으로 운영하고 대회 중간에는 드론과 RC헬기 등의 시범비행도 준비하여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체 및 교육기관 홍보·체험관은 단순한 항공문화 축제행사에서 진일보하여 항공우주산업박람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일정표

항목	일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공식행사	10.08(목)	13:00~14:30	▶개막식	사천비행장
		18:30~21:00	▶축하공연	사천종합운동장
	10.10(토)	18:30~20:00	▶항공인의 밤	KAI(주)
수출지원	10.08(목)	09:00~18:00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삼천포해상관광호텔
		10.08(목)~11(일)	▶항공 부품 견본 상담·전시회	사천비행장
에어쇼	10.08(목)~11(일)	11:00~12:00	▶블랙이글 곡예비행	사천비행장
		13:30~15:00	▶시범비행 부활호, KT-1, 전시탐색구조, EA330 LT, PITTS2B, FAZER, KT-100 등	
		10:00~12:00 15:00~17:00	▶체험비행 공군 수송기, 대학항공기, 경량항공기 지상활주, KT-1시뮬레이터	
		10:00~17:00	▶항공기 지상전시 및 무장 전시/체험	
체험전시	10.08(목)~11(일)	10:00~17:00	▶항공기 포토존 ▶도자기 비행기 만들기 ▶항공과학 체험교실 ▶사주천년 기념·체험관 ▶드론파이터 시연 및 체험 등	사천비행장
홍보관	10.08(목)~11(일)	10:00~17:00	▶공군, 교육기관, 산업체 홍보관	사천비행장
이벤트 무대	10.08(목)~11(일)	11:00~11:30	▶군악대, 의장대 시범	사천비행장
		12:00~13:00 15:00~16:00	▶체험비행 탑승자 현장추첨(12:00) ▶풍선미술쇼, 특별공연 등	
	10.08(목)~11(일)	10:00~17:00	▶항공시뮬레이션 에어레이싱대회	사천비행장
항공대회	10.08(목)	10:00~17:00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 ▶항공과학 글짓기 대회	
		09:00~17:00	▶국제신비차(PAV)대회	
	10.10(토)	09:00~17:00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사천종합운동장

※ 상기 프로그램은 기상상황 및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항공업체들을 위한 항공관련 제품 및 부품을 전시해 기업을 홍보하고 항공우주 관련 고교 및 대학을 소개함과 아울러 항공관련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라나는 항공 꿈나무들과 일반인들에게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항공관련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시연 및 체험을 비롯하여 항공무장 전시, 항공기 포토존, 항공과학체험교실 등 20여개의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체험을 통한 항공우주 기초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홍보 프로그램들도 행사장 내에서 진행되는데, 건강증진 홍보관을 비롯하여 소방분야 안전체험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홍보관 등이 운영될 것이다.

또한, 사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단체에서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남겨주는 가족사진과 장수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다소한 가을 햇살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 항공우주의 꿈을 심어주고 항공우주 기초과학 교육을 위한 행복한 체험의 장이 될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제15회 사천시민체육대회' 개최

◆10월 17일(토)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4년 만에 열려

'제15회 사천시민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7일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읍·면·동 인구수 기준으로 제1군팀, 제2군팀으로 나누어 4년 만에 열린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대회 전날인 10월 16일 오후 7시에 출향인사 환영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범시민적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회 당일은 입장식, 성화점화 등 개최식을 시작으로 식후공개행사로 삼천포중학교 학생들의 '난타공연', 육군8919부대의 특공무술 시범에 이어 14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되며, 행운권 추첨과 성적발표, 시상을 끝으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

◆새로운 경기방식·종목 추가로 시민 참여 확대

특히, 이번 대회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군별 팀대항은 종전의 전체 대항전의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이 선수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불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1군팀(사천읍, 벌운동, 사남면, 정동면, 동서동, 용현면, 향촌동)과 제2군팀(선구동, 남양동, 동서금동,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으로 구성했다. 경기종목은 트랙 경기로



지난 대회 씨름경기 장면.

남·여100m달리기, 남·여400m계주, 단체줄넘기, 읍·면·동장 및 조직단체장 릴레이, 쌀포대이고 달리기와 필드경기로 여자축구P·K, 축구, 지구를 굴러라, 어르신 화합한마당이 그리고 외곽경기로 씨름, 배구, 족구, 윷놀이 등 전체 14종목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읍·면·동장 및 조직단체장 릴레이'와 '지구를 굴러라' 종목이 새로 추가되어 시민들의 화합과 경기를 보는 재미가 더

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가 선수 자격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지난 9월 23일까지 시 체육회에 등록을 완료했다.

◆시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

대회 결과 시상은 군별로 우승, 준우승, 그리고 종목별로 시상을 하게 되며, 지난 2011년 제14회 대회때 사천읍에서 마지막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후 대회 추진

■ 대회 일정

구분	내용	시간계획	비고	
개회식	개회식	09:00~09:50	체육회 사무국	
	식후공개행사 (난타공연)	09:50~10:00	삼천포중학교	
	식후공개행사 (특공무술)	10:00~10:30	육군 8919부대	
대회	경기별	트랙경기(5)	10:30~15:40	읍면동
		필드경기(4)	11:10~15:00	읍면동
		외곽경기(4)	10:30~16:00	읍면동
폐회식	행운권 추첨	16:30~16:40	준비상황실	
	성적발표, 폐회선언	16:40~17:00	체육회 부회장	

※ 경기시간은 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소 변경된 이번 대회에 읍·면·동에서는 우승과 주민 화합을 목표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한편, 시체육회에서는 2012년~2013년도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 및 개최와 2014년도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가 선의의 경쟁으로 '시민화합의 장'으로 승화하는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체육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체육지원과) 831-2414

2015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개최

10월 30일~11월 1일 (3일간)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전시·판매 등 다채

시는 오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3일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을 위로·격려하고 사천시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시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2015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를 『사천 농업의 꿈! 하나되어 미래로!』란 주제로 항공우주테마공원(정동면 예수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오는 10월 30일(금) 오후 6시부터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각종 전시, 판매, 시연·체험, 시음·시식, 종합, 부대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특히 올해는 축제기간내에 '사천 향토문화축제'와 '사천 Propose 공연'이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축제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행사기간 내내 저녁 10시까지 늘려 진행한다.

◆개막행사= 10월 30일(금) 오후 6시부터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행사에는 개회를 알리는 개막식과 추수감사제례, 초청가수 공연, 국악공연, 밸리댄스 공연, 시민장기자랑 등의 각종 공연이 펼쳐지며, 자치센터 발표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 특히 초청가수 공연과 국악, 시민장기자랑 등은 행사기간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한마당 축제 축하공연.

◆전시행사= 10월 30일부터 3일간(오전 10시~저녁 10시) 펼쳐지는 전시행사에는 쌀, 잡곡류, 과일, 소채류, 축산물 등 우수 농·축·임산물 및 수출 농산물, 최신 농축산 농기계, 각종 농업 기자재, 전래 농경문화 사진 200여점이 전시되며, 기획 작품곡, 대곡, 현애곡, 옥곡, 소곡, 난 등 총 600여점이 전시되는 국화(난) 전시와 우수 분재를 전시하는 분재전시, 전 세계의 나비 표본을 볼 수 있고 곤충을 볼 수 있는 나비·곤충 전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작품·소품전, 외국 농산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국 농산물 비교 전시전

등이 행사장 내에서 펼쳐진다.

◆판매행사= 또한, 행사기간 내내 펼쳐지는 판매행사에는 지역특산품 연구회 담당자와 연구회원, 농협, 축협, 임협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의 양곡(쌀, 보리, 쌀, 밀), 단감, 참다래, 버섯, 고추, 파프리카, 기능성 계란, 고구마, 도라지, 관엽식물, 녹차 등을 품목별로 최고품질 상품을 소포장하여 각 판매부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우수 농·특산물 특별 할인 판매장이 운영된다.

◆시연·체험·시음·시식 행사= 시연, 체험행사에는 꽃마차타기 체험, 탈곡작

업 체험, 떡 메치기 체험, 두부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체험, 대피리 만들기 체험, 민속 연 만들기 체험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음·시식행사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2일간 오전 10시30분부터 펼쳐지며, 사천코뚜레 한우고기 시식, 탐라이스 쌀을 사용한 김밥·떡 시식, 전통 가정주 시음, 오름주가, 다래와인 시음, 벌꿀 시식, 녹차 시음, 기능성 계란 시식 등 다양한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종합행사= 11월 1일(일) 오후 1시부터 사천단감 한마당 행사가 행사장내 주무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지역별 우수 단감 품평회와 단감전시, 깎기, 쌀기 대회가 열리며 시식회도 개최된다. 또한 사천시에 소재한 각종 농·특산물 작목반 연구회(단감, 토마토, 참다래, 배, 수박, 고추, 향토음식, 천연염색, 생활원에 등)에서는 주요 작목별 활동사항 사례를 홍보하여 사천의 우수 농산물을 대외에 알릴 예정이다.

◆기타행사= 이 외에 농업한마당축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골밀도 검사, 혈압, 당뇨, 체크 등 건강관리코너가 운영되며,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나눔운동, 생활원에 화분나누기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사천시에서는 사천의 농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천 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농업한마당잔치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참여를 바라며, 올해에는 축제시간이 연장된 만큼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농축산과) 831-3764

10월은 사천시 대표 전통시장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달이다. 이번 전통시장 축제는 시장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전통시장에서는 할인행사와, 즉석경매, 먹거리장터 운영, 초청가수 공연 등 주요행사와 시장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은 전통시장 축제의 계절



제2회 용궁축원제.



지난해 단감짜기 대회.

삼천포중앙시장 (10.14.)
한아름 장바구니 축제

삼천포중앙시장 상인회(회장 채명수)는 10월 14일(수)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삼천포중앙시장 일원에서 '제10회 한아름 장바구니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품물팀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축하 개막식,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즉석경매, 가수·지역공연단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하루는 전체 점포에서 전 품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용궁축원제 (10.17.~18.)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회(회장 이규철)는 10월 17일(토)부터 10월 18일(일) 이틀간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일원에서 '제3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용궁축원제'를 갖는다. 이번 축제는 시장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상인들의 화합과 관광객에게 수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상인과 고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나눔활동(풍선, 떡, 막걸리 등 나눔), 체험마당(건어물 낚시, 맨손장

어잡기, 페이스페인팅 등), 도전마당(팔씨름대회, 미스용궁선발대회, 회썰기대회 등)에 이어 축제 한마당(대북공연, 댄스공연, 초청가수공연 등)이 펼쳐진다. 용궁시장 상인회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전국의 대표 전통시장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니 축제'의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시장은 우리의 문화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읍중심지 공동화와 대형마트 입주로 침체된 사천읍시장을 시민들에게 친근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은 1부 행사로 오후 2시부터 시민노래자랑 예선, 체험행사(즉석경매, 시장체험 등), 경연행사(단감짜기, 국수빨리먹기)가 진행되며, 2부 개막행사로 시민노래자랑 결선, 중국변검 마술공연, 색소폰 앙상블그룹 공연, 우리가락민요 공연 등이 선보인다. 또한 이날 하루는 전 점포에서 할인판매를 하고, 행사장 주변에서는 먹거리 장터가 운영된다.

사천읍전통시장 (10.20.)
신바람장바구니 축제

사천읍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신승수)는 10월 20일(화) 사천읍시장 일원에서 '제8회 사천읍전통시장 신바람장바구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국 "최우수"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4년도 전국 수처리 기술진단 완료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야 및 하수처리 용량을 구분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설별 진단업무 담당자의 1차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5곳이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았다.

시는 주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보수)와 운영개선

을 위한 연구개발 및 외부기관 연구개발사업지원, 시설안전검사, 도서류 및 장비 예비품 관리상태, 처리장내 환경 및 주민친화시설 운영 등 5개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한편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3월부터 시작하여 하루 18,000㎥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수한 하수처리요원의 기술능력이 더해져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 831-5550

사천시, 부패척결·청렴도시 만들기 '박차'

결의대회·초청 특강 등 진행

사천시가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청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 초빙 청렴특강 실시에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의 반부패 특강을 실시하는 등 '청렴사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청렴에 대한 강력한 추진방침 아래, 9월 1일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활짝 열어요! 청렴한 사천!!』을 주제로 이선두 부시장이 직접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반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부패와 청렴의 개념, 청렴도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는 청렴도 10위권 진입을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반부패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과 행정전산망(새울행정시스템)이용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 민간주도 '암행어사제' 운영 등 조직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청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공보감사담당관) 831-2269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계약심의 통과, 12월 착공 탄력

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박태정 계약심의위원장(시행정국장)을 비롯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 주요 안건으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건'과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삭도시설(외국산 기자재) 1식 구매 건'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 결정,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등 계약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는 케이블카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 참여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시키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편 사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사업은 사천시 동서동 일원(각산~조양도)에 삭도 L=2.43km 설치와 정류장 3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천시는 앞서 기본설계와, 내풍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풍동용역, 실시설계, 건설기술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실시계획인가, 궤도사업허가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로교통과) 831-2285

사천시,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예산 확보 총력

사천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태스크 포스팀(이하 T/F팀)을 구성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T/F팀 구성은 최근 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세에 따라 전국 지자체간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난

6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제 대응 T/F팀 구성을 지시한 후속 조치이다. 시는 정기적으로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및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공모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속사업중 탈락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다음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중앙부처 및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현재까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이 선정되어 10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현재 심사 중인 3개 사업(26억원)은 물론 앞으로 예정된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831-2195

수산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해당-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산분야 가리비,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며,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

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또는 어업법인)으로서 가리비와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

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가 해당된다. 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0월 12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12월 14일까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2016년 1월 31일까지 직불금 및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물과) 831-3112

구제역·AI 유입 차단 준비 완료

시는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5일 전남 나주와 강진에서 AI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및 AI 유입 차단 방역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있다. 시는 송도근 시장을 본부장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사천시 축동면 탐리 소재 사천 가축시장 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행중에 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하여 예방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농가지도·점검을 강



화하고, 공동방제단의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소독실시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천시 관내 양축농가 및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지원본부와 경남도 방역담당,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방역담당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초빙하여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교육을 개최했다. 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AI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구제역·AI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 농축산과) 831-3780

지역 단신

삼천포 여고생들의 특별한 담장 벽화

그림 재능기부로 멋진 미관 탄생

사천시 벌용동 5호 광장(용강주공아파트 앞)의 담장 20m 구간이 숲속의 새와 동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탄생했다. 이 벽화는 지난 8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맞아 미술학도를 꿈꾸는 삼천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승연 외 5명의 학생이 3주간에 걸친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벽화는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 위치하여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게 하고,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가져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창배)는 지난 9월 6일 삼천포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사천시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범대원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청장, 사천시장 등의 표창 및 감사장 수여에 이어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족들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정동면자율방범대 정충근 부대장이 송도근 사천시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 체육대회는 축구 승부차기, 족구, 단체줄넘기 등 다채롭게 진행되어 대원들 간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제1회 최치원선생 남일대 전국백일장' 성료 첫대회 일반부 대상에 김윤수씨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운 최치원선생 남일대 전국 백일장' 대상에 일반부 김윤수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문인협회 사천지회(지회장 황규홍)는 지난 11일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과 대상을 비롯해 20여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문협 사천지회가 주최하고, (사)남일대보존회(이사장 최상화)와 남일대차인회가 주관한 이번 백일장에는 전국의 초·중·고생과 일반인 등 700여명이 참가해 운문과 산문 부문에서 작품을 제출했다. 대회 관계자들은 최치원 기념공원 조성사업, 남일대 복원 및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천공항 활성화' 본격추진

시는 경상남도와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가 주축이 되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4일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본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최구식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과 이선두 사천시 부시장, 한열전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을 비롯한 사천공항 인근 9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군(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에서는 사천공항 수요확대를 위하여 남해안 관광상품 발굴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사천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경상남도와 지난 8월 6일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천·김포 적자노선의 결손금에 대한 재정지원과 공항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외버스 사천공항 정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



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항공에서는 오는 10월경 국내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천공항을 연계한 남해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학습여행(Study Tour)'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동절기 운항시간 조정과 항공요금 인하를 검토하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사천공항이 △사천·김포 노선 1일 2회 △사천·제주 노선 주 4회 여객기를 운항하는 경상남도의 유일한 공항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천공항이 활성화 되어 서부경남의 명실상부한 공항으로 거듭나고, 향후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관광교통과 | 831-3364

'찾아가는 행복버스' 인기

농·어촌 지역 주민들 행복버스 오는날 기다려

시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인기가 뿔뿔히 솟아나고 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평소 의료서비스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활동이다. 시는 금년 들어 5번째 행사로 지난 9월 사천읍 두량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인근 마을(두량2, 두량6, 장전리)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수리, 보건의료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120기동대 생활 민원 등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한편,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행복버스는 매일 1회 건강 검진팀, 농기계 수리팀, 이동 목욕 봉사팀, 생활 민원팀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어 농·어촌 취약지역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 433명,



목욕봉사 19명, 이·미용 130명, 가전제품 수리 59대, 농기계 수리 127대, 장수사진 촬영 107명, 복지상담 26명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행복버스 운영이 시행 1년을 접어들어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행정과 | 831-3564

서포면주민복지센터 개청

시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개청식을 지난 10일 송도근 시장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포면 염전마을 농악대 축하공연으로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청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지난해 2월에 20여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작하여 연면적 598.11㎡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남·여 목욕탕과 휴게실로 사용되고, 2층은 건강관리실로 완공됐다. 특히, 옥상에는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했다. 한편, 사천시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개청으로 농촌지역 중심공간인 면소재지 주민숙원사업인 목욕탕 설치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시과 | 831-3164

'제17회 사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는 지난 16일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제17회 사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관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관계기관·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천시가 후원하고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회장 장찬욱)의 주관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1978년 10월 5일 제정된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7주년 기념식을 기념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송도근 사천시장은 개회식에서 자연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시민 14명과 공무원 2명에게 시장 표창패 및 표창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더욱 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



을 당부했다. 경진대회에는 관내 14개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와 사천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참여하였으며, 남일대해수욕장 일대를 비롯한 코끼리바위, 신흥마을 입구까지 피서기를 지나 남아 있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했다. ☎ 환경위생과 | 831-2762

가을 등산객 맞이 주요 등산로 대대적 정비

시가 지난 9월 한달 동안 와룡산과 이구산 등 가을철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정비 완료한 와룡산 약불암~민재봉 등산로 구간은 총1억6백만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침목계단 및 야면 석계단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고 위험안내판, 방향이정표, 벤치 등을 설치

해 등산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또한 이구산~흥무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총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안내판 설치, 방향 이정표 교체, 침목 및 야면석 계단을 설치했으며, 각산 전망대 편의시설물 수선·도색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시민과 등산객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관내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녹지공원과 | 831-3429

용현면 송지천변 체육공간 조성

시가 지난 9월 용현면 송지천변을 활용한 체육공간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송지천변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L=300m, B=2.5m의 마사토 보행로와 야외운동기구 5점 및 벤치 3점을 설치했다. 이로서 그동안 인근 아파트 및 주변 자연마을 시민들이 운동공간 부족으로 아쉬워 하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하천변의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올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 30점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터전 가까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체육지원과 | 831-2424

추계 하천제방정비 조기 시행

시는 관내 국가, 지방하천의 기성제(하천제방의 불필요한 시설물 등) 정비를 위한 '2015 추계 하천제방 정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에 본격 나섰다. 읍·면·동에서 제출된 하천정비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정비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 9월말부터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번 추계 하천정비는 하천제방 폭파의 요철부 노면 정리와 파손된 제방 보수, 하천내 설치된 시설물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은 물론,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등 지장요인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에

대한 근원적 방지 차원에서 실시된다. 특히, 시는 특수시책으로 수목 뿌리 고사로 인한 제방누수와 파이핑(Piping)현상에 따른 제방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천4백만원의 예산을 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방하천 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하천제방 정비를 위하여 추계 하천제방정비 사업을 전년도 대비 한달가량 앞당겨 시행하며, 특수시책으로 '1단체 1하천구역 사랑모임 결연' 및 '토석은행 운영'과 연계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건설과 | 831-3274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해양낚시공원 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사천시의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4-1H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주탐사 R&D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 사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모두 19건이 제출되었으나, 2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및 부결되고 제188회, 제190회 임시회중 보류되었던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안건을 심사 완료하여 금번 회기에는 모두 20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업장인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캠핑장 조성사업, 사천바다케이블카 조성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화, 정지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철용, 이종범, 최용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19건을 의결하였다.



사천시의회가 제191회 임시회를 하고 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요지

정철용 의원(총무위원회)

1. 20만 강소도시를 위한 우리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반하여 우리시 900여 공무원 가운데 진주시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2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만 우리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타 시·군에 두고 있는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직원 인사시 관내 거주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을 구별하여 각각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 당장 관내 주소를 명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또는 조례로 인사규칙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인사때마다 고려합니다마는 적재적소 배치라는 문제점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규정을 만들 수는 없고, 정철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정 후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현재 위 규정에 따라 조례의 사후관리는 행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공포 후, 입법 후속이 발견되면 즉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을 보살피는데 큰 무리가 가는 일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의 평가제도 자체를 존속시킨다면 거기에 맞는 평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강조하고 있는 기업 민원 윈스톱 처리를 위한 정책 방향과는 달리 우리시는 거꾸로 가는 직제개편으로 오히려 민원인의 불편이 심화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혁신과제에 맞게 기업 민원 중심의 허가민원 등을 통합하여 윈스톱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허가민원' 설치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 ▶ 올해 직제개편으로 설치된 '윈스톱 민원담당'부서는 기존 민원실에 허가전담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설치 초기에는 업무 혼선과 인력부족으로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10월 하순 쯤 인력보충을 통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개편해서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에 허가담당부서팀을 개별로 배치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나올지 시민이 편리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 우리시명인 사천, 삼천포를 주제로 한 노래가 무려 38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래말들로 작은 관광시설물로서 노래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관광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천, 삼천포를 노래한 것 또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어느 특정거리를 당장 노래거리로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대교공원에 '삼천포야가까 스토리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상시 사천, 삼천포를 노래한 가요들을 들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행하겠습니다.

5. 현재 도심 중간을 두고 흐르는 한내천은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폐수로 인해 오염된 상태입니다. 때마침 1사1천 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과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우리시에서는 전체 28개 지방하천을 상대로 환경부에 하천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생태복원하천 대상에 포함시켜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으로써 맑은 물과 어류가 헤엄치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산업건설위원회)

1. 현재 우리시는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인구가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실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순차적인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동 일원 및 축동면 지역은 공업지역 계획, 사남면 예의, 화전 일원 및 항공우주테마공원 지역, 그리고 서포면 자해리 지역은 주거지역 계획, 향촌동은 농·산업단지 계획, 용현면은 공업·주거·행정 복합도시, 곤양면은 제2사천대교 건설대비 공업·주거지역 계획으로 인구증가 대책을 제안합니다.

답변 ▶ 인구증가 문제는 종포산단, 국가항공산단 등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자리창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중이고 아직 실현 되지 않았을 뿐 20만 강소도시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각합니다.

이종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흘러 듣지 않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리시가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동지역은 경제성장 거점사업이 될 송포산단 조성, 서부 3개면은 제2사천대교 건설뿐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산업단지 배후공단 및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2. 비토해양낚시공원 시설운영 공모 공고 결과가 2회째 유찰된 현실을 볼 때 향후 지역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며, 당초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자 수정 공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새로운 관광시설을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약 5년간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한 것이고, 지난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촌계가 위탁 관리를 받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과 또 그것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초 어촌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고 이것에 대비해서 만든 조례에 따라 위탁자를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촌계가 응모할 것을 전제로 2차에 걸친 공고를 했는데 응모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관계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정이 아닌 원가계산 방식의 이용료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료라든지 사용조건 등 원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사천시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이고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1. 사회복지 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여러 문

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고 살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분석하면 일부 장애인시설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일관된 행정 태도가 개탄스러우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를 향후 어떤 계획으로 관리할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서면자료 제출에 있어 예산으로 지원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시민들의 사명에 따르는 행위임에도 이에 반해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바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호가 의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의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 분야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27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률 98%까지 진행되었으나 건축을 맡은 원청업체의 부채관계로 지금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복지시설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부터 정산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자본사업 보조 2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이미 8월 중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9월 1일자 사천시보 의회동정란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을 게재하며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편집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특히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심히 유감스러우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분 자유발언 등을 요약, 편집한 것은 2013년 2월 1일부터 일 반신문크기 8면을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변경 발행하면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전문을 게재하게 되면 독자가 읽어보지도 않으므로 의회소식란에 요약 게재하기로 하고, 2012년 11월 총무위원회에 설명하고 2012년 12월 의원 연석회의에서 설명한 후 2013년 1월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천시보 편집 계획(안)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 등을 요약하여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천시보 편집 개선(안)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하면서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의 요지는 의회에서 작성하고, 시보편집담당자가 수정하면 다시 의회검토를 거쳐 게재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지금까지 시보를 편집 발행하면서 시보편집담당자가 수정한 내용을 다시 의회의 검토 없이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작성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의 요지를 지면에 부합하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포함한 요지만 기술하여 게재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이거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작성된 5분자유발언 등의 요지를 지면에 맞추어 축소 조정 게재할 경우에도 시보편집담당자와 의회담당자가 협의해서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9면에 계속>

3. 이번 KAI의 일방적인 진주시와의 우주탐사 R&D센터 MOU 체결 시도를 거울삼아 시의 항공산업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에 개별 기업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큰 틀의 사업 구상을 펼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작금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 탐사 R&D 센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기관에 한번이라도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데, 논의 없이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거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KAI를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설명만 들은 것 같은 인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KAI 우주 탐사 R&D 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일 진주에서 MOU를 체결한다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진주 지역에 우주 탐사 R&D 문제를 좀 고려해야 한다는 투의 이야기가 있었고, 경상대학교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R&D를 하도록 KAI가 3개 트랙 중에 1개 트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오후에 담당과장이 와서 "시장님, KAI로부터 우주 탐사 R&D 센터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더니 오찬 장소가 파하고 난 뒤에 담당과장이 "14일 진주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MOU를 체결하느냐?"라고 물으니 "우리는 모른다, 아는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다, 알지 못한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 민간단체에서 기자회견이 될 시점에 KAI에서는 사천시에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막아 달라, KAI가 설명하겠다." 그때 한 것이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그 내용은 상평공단에 있는 임대공장 100평을 빌려서 우주 탐사 R&D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여상규 의원께 연락을 드렸고, 여의원께서도 김재경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하성룡 사장에게 연락해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조건 MOU 체결부터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름 노력해 가는데, 지금은 입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했는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제 마치... 아까 5분자유발언한 의원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천시장이 성급한 강경대응으로 문제가 났다는 투입이다. KAI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 14일 사천시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KAI가 우주개발센터는 진주에서 실시한다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났을 때, 지역감등을 조장하지 않고 진주는 우리와 상생해야



시의원들이 사업현장(마도)을 둘러보고 있다.

하는 이웃 도시니까 정말 시장이 잘했다고 할 것인지?, 시장은 뭘 했느냐? 난리법석이 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느냐고 하겠지요? 우리가 뭘 경영 상태를 간섭 하느냐?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KAI의 속칭 '민영화 반대 투쟁' 사실은 민간 기업인데, 지배 주주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걸 막아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쫓겨가고 온갖 행사를 다하면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영간섭입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개인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때 시민을 전체 동원하고, 관계 단체들이 다 나와서 도와 달라는 경영간섭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영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입니다. MRO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KAI입니다. KAI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MRO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천시장이 왜 서명 안 했느냐고 따지는 투의 발언도 있었습니까. 뭘가 사실 관계의 큰 착각입니다. MRO 사업자는 KAI와 항공사인 복수의 합작기업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연구원을 줄여서 '항우연'인데, '항우연'이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할 사업이 대전에 있는 것보다 인근 진주에 오는 것이 더 좋다,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용어만 보면 이런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우연' 소관 예산이든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이든 간에 그 사업 시행자가 KAI입니다. 당초 KAI의 말대로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면 MOU를 KAI가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시가 해야 되죠. 그런데 KAI가 주체입니다. KAI의 사업입니다. 자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천시는 통합개발센터를 허가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 가고 있고, 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갑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갑

질을 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는 더 점입가경입니다. 시장이 잘못했다, 소통을 안 했다, 뭘 어떻게 소통하라는 말입니까? 대전에 있을 것이 진주로 온다고요? 1조원 가까이 되는 우주개발사업입니다. 정말 대전에 있어야 할 사업이라면 대전시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다. 아직 심사 중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예산심의도 되지 않은 주관 부처의 요구액이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예결위 원장이 살려준다는 전제하에 협의부터 먼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의결 기능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결코 김재경 위원장의 쪽지예산에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의회를 포함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다 하여 이 사실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야기 해 주는 KAI의 입장을 시장의 입장에 볼 때는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집행기관에 알아보고 대응해서도 좋고, 진주시의회에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 안 됩니다. 선후 관계가 어떤지, 사실 관계가 오도된 일방적인 정보에 의해서 사천시가 KAI에 끌려가고, KAI가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KAI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카드를 항상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항공정책에 대해 변화가 된 것도 없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야 "소통을 안 한다?" 어제 KAI노조에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노조위원장의 면담을 거절했다고.... 회의시간 중에 노조위원장이 한번 다녀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정식 사전면담 요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 시간 중에 잠시 왔다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약속을 잡자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야 합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나갑니다. 노조위원장이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이러한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천시가 갑질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MOR 부지를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만 하더라도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같이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동분서주 하면서 MRO 예산을 편성하려고 경남도에도 여러 차례 요청해서 내년 본예산에 시비 60억 원, 도비 30억 원 포함 90억 원의 사업비로 일단 개발행위 방법으로 우선 9,000평이라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만 진주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시제품 생산부터 시작해서 부품생산은 사천에서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자료로 시민을 설득하겠다, 시민단체도 설득하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항공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4. 부산시의 진주사무소 개설 추진 등 다시금 남강댐물 부산 공급 추진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부산 물 공급을 위해 남강댐 저수량을 확대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우리시가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지 담긴 답변 바랍니다.

답변 ▶ 부산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일단 백지화된 상태로 수면 아래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위를 현행 41m에서 45m, 평시 만수위입니다. 홍수위는 46m입니다. 이렇게 1m 정도 여유를 두고, 평소 수위를 높여 관리하는 것은 댐의 안전성이나 그 댐의 잘못이 올 때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이 사천시민이라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의 저수량 확보는 끝까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천시민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고 피해가 없는 방법이라면 몰라도 지금의 구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 혼자서 아니라 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서 적극 극렬하게 반대할 내용입니다. 사무소 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생각하고 그때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총무위원회)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내실화 촉구

우리시를 비롯해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문화, 행정 등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우리시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대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단순한 우호-친선 교류 관계로 변모하여 좋게 말하면 문화체험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막대한 공공으로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전략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은 '생산성' 발굴을 위한 전략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 동성초등학교는 지난

2002년부터 청소년의 도자기 문화 이해와 외국어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치마치청과 함께 '도자기를 통한 한일교류 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문화 글로벌 대표도시'로서의 사천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성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가 학생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예산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민간 및 학생 교류를 비롯해 문화, 경제, 농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으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지선 의원 (총무위원회)

사천시와 KAI의 상생을 바란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시와 우리시의 대표기업인 KAI와의 사태에 대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발 양보와 타협의 방안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와 KAI의 불협화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주탐사 R&D 센터 진주 설치를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KAI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항공 MRO 산업 유치활동을 포함해서 KAI와 벌이던 모든 협의와 협력에 대해 중단을 선언하였고, 국토부에 제출할 항공 MRO 사업 계획서에 송도근 시장님은 서명을 보류해오다가 경남도의 중재로 어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4일 우리시 의회 의원들은 KAI를 방문해서 우주탐사 R&D 센터 진주 설치 추진에 관한 내용과 KAI의 입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주탐사 R&D센터 진주지역 지원계획안 중 MOU가 체결되더라도 우리시가 우려하는 KAI의 사전 인력이 진주시로 옮겨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우주발사체의 생산 제조 또한 사천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KAI는 진주와의 MOU 체결을 연기하고, 그 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와 소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왜 우리시는 KAI의 소통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KAI 노동위원장과 면담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뿐입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감정을 앞세워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번 사태로 우리시는 항공 산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우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KAI에서도 우리시와의 갈등과 대립 관계가 지속된다면 KAI본사의 타지단체로의 이전과 국가 항공 산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경남 항공 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급한 강경대응으로 더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일지,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지역민을 위한 한방의료봉사 전개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관리단(단장 조관식)은 지난 9월 13일 한방의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연우'와 함께 사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사천시 지방상

수도를 수탁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시민의 의료혜택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뜸, 침술, 고주파 치료 등 맞춤형 한방 의료와 이·미용서비스도 함께 실시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실시

지난 9월 21일 사천읍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종욱) 주관으로 15개 단체 회원 약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사천종합운동장 주변을 시작으로 국도 33호선, 사천읍시장 일원, 수

양공원 주변 등에 대하여 각 단체들이 구역을 정하여 환경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약 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행사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동면 정동면 공동체 운동 활성화

'더불어 사는 정동면'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정동면 공동체운동 추진협의회(회장 노정규)는 지난 9월 15일 정동면 공동체운동 추진협의회 임사회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운동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삭막한 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동면 지역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운동으로서 홀몸노인 목욕시키기, 장애인 애로사항청



취 및 집 고치기, 다문화가정방문 고충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남면 사남면 장학회 설립

지난 9월 1일 사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남면 장학회 설립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회장선출, 임원선정, 이사선임 등 장학회 설립과정을 마쳤다. 사남면 장학회(회장 장지걸)는 15억을 모금 목표액으

로 정하여 공단지역 내 저소득층을 비롯해 성적이 우수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인원과 지급규모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오-오 결연' 협약식 개최

지난 9월 15일 사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마을이장 등이 참여하여 사남면 '오오 결연(1부녀회·1경로당)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로 자연마을 경로당에는 따뜻한 관심과 지

원을 약속받았고 아파트 부녀회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올 10월부터 각 아파트 부녀회별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용현면 '제15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

오는 10월 17일 개최되는 '제15회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9월 17일 용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용현면 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면을 대표해 참여하는 조직단체장, 체육회 임

원 및 선수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체육대회의 필승을 다짐했다. 문상경 체육회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수를 구성해 화합과 정성이 넘치는 대회로 승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조직단체 합동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 펼쳐

용현면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1일(금) 새마을협의회(회장 이문우),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향선),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방현주) 등 조직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간마당에서 사천대교 하부에 이르는 해안도로변 환

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과 해안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깨끗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축동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가져

축동면 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9월 8일 축동면복지회관에서 여성의용소방대원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대 김정자 대장 이임식 및 제8대 서명자 대장 취임식'을 가졌다. 축동면의용

소방대는 1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및 수해복구현장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서명자 대장은 취임사에서 "내 고장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체육회, 시민체육대회 화합 잔치 준비

축동면체육회(회장 이태우)는 '제15회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총회를 회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4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시민체육대회 참가 예산 승인의 건을 확정하였으며, 타

면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선수 발굴이 어려운 실정이나 체육회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역대 최고의 선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태우 체육회장은 "모든 면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곤양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명절맞이 캠페인

곤양면 바르게살기운동 곤양면위원회(위원장 김규현)는 지난 9월 10일 전화원이 참여한 가운데 곤양시장과 우체국 사거리에서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조삼제)와 함께 법질서 확립 및 검소한 명절맞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곤양면협의회장(김규현)은 기초질서 잘 지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비봉내 축제= 일시/장소 : 2015. 11. 14 (토) 곤양종합시장 일원
주요내용 : 민속놀이, 전통행사, 체험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먹거리장터 운영

곤명면 '제4회 다슬기축제' 성료

곤명면 초량마을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4회 다슬기축제(추진위원장 정영규)'를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방문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다슬기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자연마을 단위 축제 자율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되

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9월 18일(금) 개막 식전행사인 길놀이를 시작으로 유라예술단 공연, 떡메치기, 고구마 캐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다슬기를 이용한 향토음식 및 직접 만든 촌두부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곤명사랑나눔회 이웃돕기 물품 기탁

곤명면 사랑나눔회(회장 강쌍복)는 지난 9월 18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쌀(10kg) 68포를(1백50만원상당) 곤명면에 기탁했다. 곤명사랑나눔회는 곤명면 지역의 발

전과 지역에 봉사를 목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매년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8세대에 전달했다.

서포면 '제2회 비토섬 별주부전 축제' 성료

'제2회 비토섬 별주부전 축제'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서포면 별주부전 테마파크 일원에서 '토끼가 용궁을 구경하다'하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기간 동안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4,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지역특산물인 조기 매진되는 등 인기가 매우 높았다. 이번 축제는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서포면에서는 지난 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초부터 관내 도로변 및 소공원에 대한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먼저 자연보호협의회(협의회장 윤태섭)가 지난 7일

비토섬 별주부전 테마파크 일원 정비를 시작으로 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이경덕, 부녀회장 이말달)는 지난 16일 관내 소공원 3개소의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동서동 주민센터 자체 소방훈련 실시

동서동주민센터는 지난 9월 22일(화) 11시 동청사 건물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자위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사고수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훈련에 앞서 직원들의 임무 숙지 등을 위한 소방교육을 실시한 후,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해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자위소방대 12명은 청사 밖에 있는 옥외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 민원인 대피, 환자이송 등의 실제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훈련을 마친 후 사전소방서 동급 119안전센터 팀장으로부터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법 등 교육이 있었다.

벌용동 새마을회, 추석맞이 환경정비

벌용동 새마을회(협의회장 황윤실, 부녀회장 박일광)는 지난 9월 17일 추석을 맞이하여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벌용동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소공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새마을회는 매년 어려운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에도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선구동 조직단체들, 추석 소외된 이웃에 온정 손길

선구동 각 조직단체에서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자원봉사회(회장 윤덕이)가 지난 15일 회원 10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곽병환)는 지난 23일 소외된 어려운 세대 성적 우수 학생 2명에게 장학금 30만원과, 라면 2박스, 상품권 30만원을 전달하고, 학업 애로사항을 듣고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강위원회(회장 서창현)에서는 지난 24일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50세대에 건강도시락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명영 동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희망나눔회, 독거노인에게 생일상 차려드려

벌용동 희망나눔회(회장 김옥선)는 지난 9월 22일 관내 독거노인 김OO 어르신 의 73번째 생일을 맞아 자택에서 회원 10여명이 모여 손수 마련한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렸다. 이번 사업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이 없어 외롭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미역국 등 생일상을 차려드려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여 나눔 복지 실현과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희망나눔회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발족하여, 현재 14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타 읍면동에 회원들이 복지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관내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파수꾼으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각종 자원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모니터해 나가고 있다.

향촌동 따뜻한 나눔이 모여 행복 가득한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향촌동 연합 청년회와 몇몇 기업들이 관내 23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여 훈훈한 추석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나눔에는 향촌동연합청년회(회장 김삼운)에서 지난 대보름 달맞이 행사 수익금과 회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성금으로 백미 23포(20kg/94만원 상당)를 기탁했으며, 유진수산(대표 강유복)에서 백미 23포(20kg/94만원 상당), 청해물산(대표 차병호)에서 고등어 23상자(10kg/2백23만원 상당), 꼬방시푸드(대표 김용주)에서는 김 23상자(58만원상당)를 관내 경



로당에 전해 달라며 향촌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주민센터 직원들과 향촌동 자원봉사회(회장 강달선) 회원들이 지난 23일 직접 관내 23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주민자치위원회 남원시 도통동(영호남 교류 행사) 방문

선구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곽병환)는 오는 10월 22일 자매결연 도시인 전북 남원시 도통동을 방문하여 도통동 주민대표와 영호남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선구동과 도통동은 지난 2000년부터 인연을 맺고 동서화합과 해안과 내륙의 만남이라는 조화

로움 속에 열다섯 해 동안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우의와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이번 교류는 남원시 도통동의 초청으로 선구동 주민 40여명이 도통동을 방문하게 되며, 앞으로도 상호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지역의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동서금동 추석맞이 환경정비 실시

동서금동주민센터는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차와 9월 18일 2차에 걸쳐 추석을 앞두고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차 환경정비는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천포교~금홍교간 하천 및 소공원, 가로화단을 대상으로 풀베기와 함께 쓰레기를 수거했다. 2차 환경정비는 동 주요 조직

단체와 동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내천 주변도로 쓰레기 수거와 제조작업을 실시했다. 박봉욱 동서금동장은 "환경정비로 추석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조직단체원들에게 감사하고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회 밑반찬 봉사 실시

동서금동 자원봉사회(회장 이영순)는 지난 9월 14일 회원 15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계층, 부자세대를 위한 밑반찬 조리·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싱싱한 식자재를 구입하여 정성을 담아 밑반찬을 조리하고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자원봉사회는 밑반찬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매년 독거노인 효 목욕봉사, 장학금지원,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남양동 동민을 위한 '자유새의 찾아가는 음악회' 성료

지난 9월 4일 저녁 7시 남양중학교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동민과 함께하는 '자유새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울려퍼 무더위로 지친 주민들에게 정서적·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남양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진수)가 주관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식전 공연과, 사천시의 대표적 밴드인 '자유새'의 분공연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주민들과 의미 있는 한마당 자리가 펼쳐졌다. 한편, 음악회에 함께한 한 주민은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준 행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제15회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

남양동 체육회(회장 김명근)는 지난 9월 9일 만리장성뷔페식당에서 '제15회 사천 시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을 체육회 이사, 고문, 선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오는 10월 17일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에 남양동에서는 축구, 배구, 씨름 등 12개의 종목에 108명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 처음 시행되는 2개군 대항전에서 남양동은 제2군으로 편성되어 결단식을 계기로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사천시의회의원(사천시라선거구) 재선거 안내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 본투표 : 2015. 10. 28(수) 오전 6시~오후 8시
- 사전투표 : 2015. 10. 23(금) ~ 24(토) 오전 6시~오후 6시
 - ※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소지하면 투표 가능
- 투표장소 : 동서금동주민센터 2층, 벌용동주민센터 2층, 향촌·동서금동 에 비군중대본부

면세품 구매관련 안내

- 면세품 구매한도
 - ① 국내면세점
 - 내국인은 미화 3천불, 외국인은 제한이 없음
 - ② 국외면세점
 -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구매한도 제한이 없음
- 입국시 면세통관 한도
 - ①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
 - 다만, 향수 60ml, 담배 1보루(200개비 이내) 및 주류 1병(1ℓ 이하로 미화 400불 이하)은 별도 면세
 - ② 따라서 입국시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그 물품가격의 총액 중 미화 600불 초과분은 과세
-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반품
 - ① 출국 전에는 언제든지 해당 면세점에 반품 가능
 - 다만,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공항 출국장 소재 인도장에서 이미 인도받은 경우는 해당 인도장으로 반품
 - ② 출국 후 입국시 반품하는 경우는 반품할 물품의 추가가격이
 - 미화 600불 이하이면 일단 입국 후 해당 면세점에 반품
 - 미화 600불을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여 유치한 다음,
 - 비과세 상태에서 해당 면세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출국장 면세점이나 인도장에서 인도받아 출국하여야 함
- * 유치는 입국장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됨
- 국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반품
 - ① 입국시 세관에 신고, 비과세 상태로 예치한 다음 추후 출국시 세관으로 부터 인도받아 출국하여 반품
 - ② 만일 예치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는 추후 출국시 여행자 개인이 휴대 반출하여 반품
- ※ 문의처 : 김해세관 ☎ 055-899-7219

2016년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자격요건 변경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등 관련업무 간소화
 - 농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이통장의 확인 : 대상자의 농어업종사 (농어업인해당일)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여부 확인(1차조사)	○ '16년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일원화할 계획
○ 시군구(읍면동): 1차확인 후 제출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 2차 확인(2차조사) - 농어업 종사여부(농지원부 등) 및 지원대상 거주여부 등	
-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055-855-2812 / 855-2813 Fax 855-2815 콜센터 1644-8778)로 하시기 바라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각 공단 콜센터(건강보험 1577-1000, 연금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안내	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돌봄서비스 (3개월~만12세이하)	· 이용요금은 시간당 6,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 · 가,나형 월 60시간/다형 월 40시간 한도 지원 ·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등 ※가사활동 제외
종일제 돌봄서비스 (3개월~24개월)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2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 ·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이유식 먹이기, 젓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 제외
종합형 돌봄서비스 (가사추가형)	·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 ·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정리 및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협의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44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 지원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이용절차 및 신청
 -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지원유형 결정 및 통지(시)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
- 문의처 : 사천YWCA 아이돌봄사업단 (☎ 055-832-4422)

교통카드 잔액 환급방법

구분	정상카드	고장카드
① 카드상태	- 기능적, 외형적 이상이 없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카드	- 불량카드 □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충전기나 단말기에서 정상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카드 - 파손카드 □ 고의 혹은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찌름, 태움,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칩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카드
② 절차	- 마이비 : 본사 또는 가맹점 - 스마트 □가맹점점(2만원이하) □본사 또는 일부가맹점(2만원 이상)	- 환불부투 수령(GS25, CU,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우체통 투입(신청서 작성, 교통카드 첨부) → 계좌입금
③ 수수료	- 마이비 : 본사나 서비스센터(무료), 편의점(2%) - 스마트 : 500원 (본사 직접 방문 시 수수료 없음)	- 없음
④ 환불 소요시간	- 마이비 : 즉시 - 스마트 : 즉시	- 마이비 : 14일 - 스마트 : 10일
⑤ 카드구입 대금 환불	- 없음	- 마이비 □ 1년 이내 구입한 불량카드 새카드 교체 □ 파손카드의 카드구입대금은 지급하지 않음. - 스마트 □ 2년 이내의 불량카드에 한하여 카드구입대금 환불 □ 파손카드의 카드구입대금은 지급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신청서, 교통카드, 환불부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15년 11월1일 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안)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시·도, 경찰, 기획재정부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의 수법

- 자신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제품을 구매해야 약속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인
- 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글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장하여 자신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유도
- 유통업종이 많으며 상조행사 예약금과 같은 상품권 형태의 물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나, 고가임에도 질이 낮은 제품이 대다수

◆ 당부사항

- 명칭이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사무소가 소재한 경상남도 기업지원단(055-211-3354) 또는 협동조합 업무 담당과 관할, 경찰서로 신고
-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설립 인가한 정부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2)로 신고
 - * 신고 또는 제보시 피해사례를 자세히 작성하고 해당업체가 배포한 홍보물,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

2015년 가을 관광주간 안내

■ 기간 : 2015. 10. 19. ~ 11. 1.

■ 목 적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여름에 집중되는 여행객을 봄과 가을에도 분산시키기 위함

■ 내 용 : 관광주간 기간 중 관광시설 및 숙박, 체험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저렴한 여행 가능

※ 관광주간 할인 업체 현황(사천시)

- 사천항공우주박물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엘리너스호텔, 사천관광마차

※ 관광주간에는 전국 관광지, 숙박, 교통, 음식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행사 열리며, 분야별 할인혜택과 문화행사는 '관광주간 홈페이지' 및 '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천시 관광교통과 ☎ 055-831-2725)

경남 시·군 행사소식

진주시(진주남강유등축제)

- 기 간 : 2015. 10. 1(목) ~ 10. 11.(일) 12일간
 - ※ 수상불꽃놀이 : 10. 1(목) 20:00 / 남강일원
- 장 소 : 진주남강 일원, 진주성 내
- 입 장 료(문의처 : 축제위원회 ☎055-755-9111)
 - 개인 : 성인(10,000원) / 초·중·고학생(5,000원)
 - 단체 : 성인(8,000원) / 초·중·고학생(4,000원)
 - 우대 : 국가유공자, 장애우, 군복무자(5,000원)
 - ※ 제65회 개천예술제 : 10. 3(토) ~ 10. 10(토)

창원시(제15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 기 간 : 2015. 10. 30(금) ~ 11. 8.(금) 09:00~22:00 10일간
- 장 소 : 마산항제1부두
- 문 의 처 : 창원시청 축제지원담당 ☎055-225-2341

남해군(제6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 기 간 : 2015. 10. 9(금) ~ 10. 11.(일) 3일간
- 장 소 :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
- 문 의 처 : 남해군 관광안내소 콜센터 ☎055-867-7783

고성군(대한민국 민속음악 대축제)

- 기 간 : 2015. 10. 17(토) ~ 10. 18.(일) 2일간
- 장 소 : 경남 고성농요공연장(☎055-674-2668)

하동군(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 기 간 : 2015. 10. 2(금) ~ 10. 4.(일) 3일간
- 장 소 : 하동군 이병주문학관(☎055-882-2354)

박재삼의 삶과 문학(7) 정삼조(시인·문학박사·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

이번 호에서는 박재삼 시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시 세 편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박재삼 시인은 사랑을 세상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은 또한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한 시(3)

세상의 사랑이란 때로 아픔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사랑의 열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또 다른 새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기에 사랑을 더 힘찬 것으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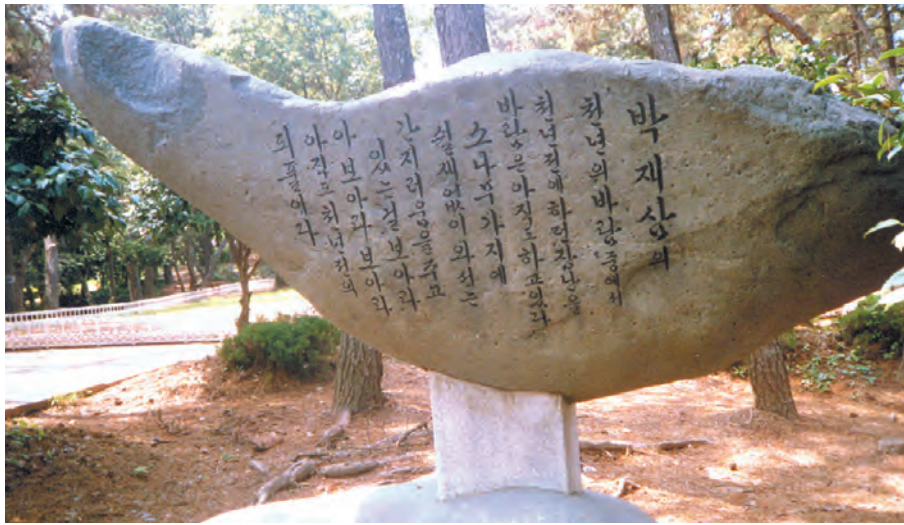
恨(한)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뒤로 번어가서 그사람의 머리 위에서 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본데, 그러나 그사람이 그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前生의 내 설움이요 소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사람도 이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제1시집 「춘향이 마음」 1962년

위 시는 사랑의 아픔을 그린 시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이승을 떠난 저승에서라도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아프게 맺혀 이 시의 제목인 '恨(한)'이 되었습니다.

1연은 이승에서는 불가능한 사랑,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절박한 사랑을 노을빛에 익어가는 감나무 열매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연은 그 하소연을 저승에서나마 감나무로 그 사람의 등 뒤에 휘드러짐으로써 드러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3연은 그 열정의 절정입니다. 감나무 열매의 빛깔, 前生(전생)의 내 모든 설움이요 사랑의 모습인 그 빛깔을 사랑하는 이가 알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박재삼 기념비

더해 설혹 알아내기는 알아내었다라도 내 설움과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또한 설운 삶을 살아야했다는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운 삶, 또는 서러운 사랑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나의 설운 사랑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 하소연조차 해보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까지라도 가져가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한 시입니다. 사랑의 아픔, 그 마음이 노을 속 감나무에 달린 열매로 익어가는 정경이 눈에 선한 시입니다.

내 사랑은

한빛 黃土(황토)재 바라/ 종일 그대 기다리다, 타는 내 얼굴/ 여울 아래 가라앉는, 가야금 저무는 가락,/ 그도 떨고 있고 나. 몸으로, 사내 장부가/ 몸으로 우는 밤은, 부연 들기름불이/ 지지지 지지지 않고, 달빛도 사립을 빠진/ 시름 갈래 萬갈래. 여울 바닥에는/ 잠 안 자는 조약돌을 날 새면 하나 건져/ 햇볕에 비쳐 주리라. 가다간 볼에도 대어/ 눈물 적셔 주리라. (一九六四)

- 제9시집(時調詩集(시조시집))

「내 사랑은」 1985년

박재삼 시인께서는 먼저 시조를 쓰시고, 이후 시를 쓰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의 전신인 제1회 영남예술제에서 시를 써 장원을 한 이형기 시인과 함께 차상으로 입상한 작품도 시조였습니다. 문단에 추천을 받은 작품도 시조가 주였습니다. 아마도 삼천포중학교 시절의 은사 김상옥 시인께서 시조를 쓰셨고, 그분의 시조집을 베껴가며 문학 공부를 한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위 시도 시조인데 1985년에 낸 유일한 시조시집「내 사랑은」의 첫 번째 수록작품입니다. 시집 제목과 시 제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박재삼 시인의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연은 황토흙 날리는 고개를 바라보며 올 가마가 없어보이는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黃土(황토)재'는 실제 고개일 수도 있겠으나 풀과 나무도 없는 황량한 곳으로서 가망 없는 사랑의 절망감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태워가며 저물도록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떨고 있는 가야금 가락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2연은 지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밤을 드러냅니다. 뜨거워져만 가는 사랑의 정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재삼 시인의 시에서 들기름불이 지지지 지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체 보기 어려운 힘찬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비례해서 시름도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3연은 차분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울은 물흐름이 빠른 곳이고 그 아래 조약돌은 그 물에 씻긴 것입니다. 간밤의 내 마음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 조약돌을 햇빛에 말리고 눈물에 씻어 전해 주겠다고 노래합니다.

위 시는 기다림, 좌절, 마음의 전달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전달되었으니 이후 다시 기다림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또 마음의 전달이 있겠지요. 사랑은 이런 구조로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는 사랑의 아픔, 그 중에서도 짝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재를 노래한 시입니다. 가슴 아픈 만큼 울림도 큰 사랑의 시입니다. 해설은 없어도 될 듯합니다.

아름다운 천

나는 그대에게 가슴 뿌듯하게 사랑을 못 쏟고 그저 심약한, 부끄러운 먼 빛으로만 그리워하는, 그 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엉터리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남들은 웃겠지만, 나는 그런 짝사랑을 보배로이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짝 아름다운 천을 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 가을, 갈대소리가 되어 서격입니다. 가다가는 기러기 울음을 하늘에 흘리고 맙니다.

- 제1시집 사랑이여 1987년

사주 천년, 황제(고려 현종)를 품은 땅 '사천' (6) 장필복매 (葬必伏埋) 공대원 (사천문화원 사무국장)

'사천을 떠나 파란만장한 삶의 길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사천에 남은 왕순은 천애의 고아가 되었으나, 그의 신분은 그를 가만히 놓아주지 않았다. 비록 아버지를 '장필복매'하였으나 5세의 왕순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왕순에게 궁궐로 돌아오라는 왕명이 떨어진다. 왜 목종은 왕순을 궁궐로 불러들인 것일까? 성종에 이어 왕위를 이어 받은 목종은 자식이 없었다. 성종 또한 아들이 없었기에 왕위계승의 일 순위는 왕순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천추태후' 때문이었다. 목종이 즉위하자 섭정을 시작한 천추태후는 아들인 목종이 자식이 없자 자신과 외척인 김치양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이를 간파한 목종은 왕순을 대량원군으로 봉하고 궁궐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어린 왕순의 수난이 시작되었으니 왕순이 12세 되는 어느날 천추태후는 왕순의 머리를 깎여 승교사로 출가를 시켜버린 것이다.

왕순을 출가시킨 천추태후는 개성근처

에 있는 왕순이 불안하여 왕순이 15세 때 다시 삼각산에 있는 신혈사로 보내 버린다. 이후 자객을 보내 왕순을 죽이려 하였으나 신혈사에 있는 노승 진관스님이 사태를 짐작하고 불상 밑에 굴을 파고 왕순을 숨겼으며, 궁중에서 보내온 독이든 음식을 몰래 버리는 등 왕순을 보호하고 보살펴 주었다. 훗날 왕위에 오른 현종은 이때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신혈사를 진관사로 명칭을 바꾸고 대대적으로 증축한다. 이렇듯 수난의 불우한 시절에도 신혈소군(神穴小君)이라 불리던 그는 태연 자약(泰然自若)하면서 한편의 시를 지었다

一條流出白雲峯 백운봉에서 흘러내리

는 한줄기의 물

萬里滄溟去路通 망경창파 멀고먼 바다로 향하구나

莫道潺湲溪下在 바위 밑을 스미어 흐르는 물 적다고 하지 말라

不多時日到龍宮 용궁에 도달할 날 그리 멀지 않으리

계수(溪水)라는 이 시는 장차 왕이 되고자 하는 왕세자로서의 기개가 넘치는 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목숨의 위태함을 느낀 왕순은 숲한 암살과 독살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목종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드디어 천추태후의 악행을 알게 된 목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주항공소년 토록이의 항공 이야기(138)

항공기 바이오 연료 시대

항공사 비용 중 연료비는 4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으며, 항공기 증가로 인하여 항공유 가격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 평균 12% 정도씩 상승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세계 항공기는 지금의 두 배인 3만 50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례해 항공유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항공업계에서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 연료부터 연비가 높은 새 항공기 도입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상위 항공사들은 저마다 바이오 연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 연료(BioFuel)는 해조류나 곡류 등에서 추출하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 연료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80%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비도 높아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항공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2%를 차지한다. 항공기의 배출량은 1990년 대비 현재 2배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항공시장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연비 효율성은 높이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항공기의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안을 2017년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일부 항공사에 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규제에 발맞춰 항공업계도 2020년까지 탄소배출 증가율을 제로로 낮추고 2050년까지는 2005년 수준으로 감

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공기 바이오 연료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성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기존 항공 연료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잉(Boeing)은 식물성 기름과 지방 등으로 만든 '그린 디젤유' 사용 승인을 미국 당국에 신청했다고 한다. 에어버스(Airbus)도 2011년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들과 함께 바이오 항공 연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항공기 엔진 회사인 GE도 궁극적으로 기존 엔진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항공, 캐세이퍼시픽 등 항공 운항사들도 수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KLM 네덜란드 항공사와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 핀란드의 핀에어 항공사들은 바이오 연료를 여객기에 사용하여 일부 노선을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그린 항공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은 미세조류에서 짜낸 기름을 이용해 바이오디젤과 항공유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공군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 항공유로 기존 항공유를 일부 대체해 전투기에 적용하여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김형래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마 음(心)

원 태(사천시 사남면)

마음이 음흉하고 거짓스럽고 탐욕으로 가득 하다면 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그러한 마음 그릇에 복을 담아주지 않을 것이며 미움과 증오, 원망과 원한,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는 내내 싸우고 다들 일만 생길 것이 뻔하다.

인생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는가?

마음 그릇을 비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쓰레기로 마음 그릇을 채워 화(禍를) 자초할 수도 있다.

마음 비움을 회개(悔改)라고 하지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을 말한다.

마음은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다.

마음은 보물 상자이기도 하고 쓰레기통이기도 하다.

마음은 연인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악마의 은신처이기도 하다.

마음은 사랑이 샘솟는 웅덩이이기도 하고

미움과 증오가 이글거리는 불가마이기도 하다.

옹서하는 마음은 하늘과 바다 같지만, 양심(良心)품은 웅졸한 마음은 바늘하나 꽃을 자리가 없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은 그곳에 꽃처럼 내려앉는다고 한다.

불가(佛家)에서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즉 마음이 부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가르친다.

가톨릭에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마음 청빈심과 깨끗한 마음 청정심이 참마음이라고 선언하고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느님께서 천국의 복을 담아주신다고 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우리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을 많이 받으며 사랑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희망해 본다.

사천의 뿌리

조영규(사천시 용현면)

'정체성'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다.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조직에서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사용하기에 따라 그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자기의 뿌리를 알고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공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주기 때문에 자기 역사, 자기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사천의 지명 역사는 사물국, 사물현, 사수현, 사주, 사천현(군남군, 군양군), 사천군(삼천포시), 사천시 등으로 변천하여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말 동계 출신인 목태림의 「동성부」에 의하면 '사물은 석계에 있었다'라는 글이 있는 것을 보면 사물국의 치소는 용현면 석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옥골, 옥밭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

삼국사기에는 '212년에는 보라국(保羅國) 등과 더불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신라군에 패하여 항복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물국이 망하고 신라의 한현으로 병합되어 사물현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치소는 정동면 고읍리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으로 성황당산성이 있다. 고읍리는 사물현(212~757), 사수현(757~1015), 사주(1015~1413), 사천현(1413~1445)의 치소

가 무려 1233년간의 유지 되었다고 추정한다.

지난 2013년 사천정명600주년 기념사업으로 고읍리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사천의 역사가 어려 있는 곳이라는 설명문이라도 세워야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천읍성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읍성과 산성은 겉으로 보기엔 성곽이라는 구조물이지만 성곽내부가 품고 있는 내용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이다.

산성은 군사적 개념만 존재하지만 읍성은 군사적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 경제, 문화 등 그 지역의 총체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읍성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남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리라 본다. 그동안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수양공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찾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향토에는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압도하여 미래를 향한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이 뿌리를 모르면 교만해진다고 한다. 교만은 매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여름에 스스로를 뽐내며 웃자란 가지는 겨울에 내리는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름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한여름의 태풍도 견디고 한겨울의 폭설도 이겨낸다. 가지의 무성함이 아니라 뿌리의 깊어짐을 배워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조선일보 정진홍 논설위원의 말씀이 동질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자 퀴즈

다음중 지난 9월 '사천관광 캐치프레이즈' 공모 결과 "대상"을 차지한 공모작은 무엇일까요?



- ① 삼천포로 빠지다, 사천에 빠지다
- ② 사천! 별을 뿌린 바다로! 꿈을 새긴 하늘로!
- ③ 사천가지 色다른 여행, 사천으로!
- ④ 팔딱팔딱 싱싱한 사천!

* 시정홈페이지(문화관광) 참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천시 공보메일 (shgongbo@korea.kr)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정답을 맞힌 몇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접수되는 분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 지급자 선정)

건강칼럼

적절한 방사선 검사진단, 실보다 득이 더 많다

어느 날, 지속된 복통을 호소하던 40대 중년의 여성이 CT 검사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 CT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겠지만 주변으로부터 들은 방사선 피폭량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외상 등으로 아이가 CT를 찍을 때 많은 부모들이 성장에 또는 건강에 방사선 피폭량이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조재경
삼천포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부원장

“자연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일이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지, 아니면 이 지식이 인간을 해롭게 할 재앙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방사선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퀴리부인이 노벨상 수상 기념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이런 방사선의 특성을 의학적으로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첨단 융합기술이 방사선 의학입니다.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진단에 이용하며, X-ray,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이 가장 많이 보급된 방사선 진단기기입니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은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구조물 및 병변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및 질환에서 병변이 의심되고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이 되는 검사법이다. CT는 MRI에 비하여 검사비가 싸고,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고, 다중채널 CT(MDCT, multi-detector CT)가 보급되면서 촬영 후 영상을 재구성하여 MRI처럼 원하는 단면상 및 입체적인 삼차원(3D) 영상도 자유로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 우

려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연상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양은 연간 약 2~5mSv 정도입니다. CT의 경우는 촬영 기법에 따라 2~10mSv 정도 피폭되며 약 8개월에서 3년간 일상에서 노출되는 정도의 방사선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CT를 저채널(4채널, 16채널)에서 고채널(64채널, 128채널)로 교체함으로써, 촬영시간 단축과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고, 의료진들은 진단에 있어서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초음파나 MRI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방사선은 일부 우려스러운 시각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진단이나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자를 일선에서 대하는 의료진들이 방사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노력을 한다는 점을 믿고 따라와 준다면 환자의 진료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촌마을의 뒷산에는 장군번덕(산 등성이가 광활함)이 있는데 이 곳은 군사들의 훈련장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현재 그 산아래는 육군부대가 현존하고 있으며 평촌 한재골의 대곡사 산의 봉우리를 감투봉이라 하는데, 이 곳은 장군이 관과 투

- 사천아카데미 제95강좌 -



입류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 일 시 : 2015. 10. 15(목) 14:00 / 시청대강당
- 강 사 : 교수 백점기(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기획공연
안데르센
2015. 10. 23.(금) 19:30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7,000원 / 문화가족·단체(10명이상) 5,000원 관람등급 1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공연 예매일 | 인터넷 및 방문 10. 12. 09:00~ / 전화예매 10. 19. 09:0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천시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극단
후원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art.sacheon.go.kr TEL. (055) 831-2460

곤양면 물고뱅이마을 이야기



사천시문화관광해설사 배시남

<8월호에 이어서>

이와 같은 무(武)에 관한 유래를 살펴보면 맥사에서 무고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물(말)미(馬上들)라는 산이 있고, 평촌마을의 한재골에는 장군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왜인들이 장군이 못 나오도록 불(火)을 뿜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상촌마을의 앞 들을 장막(將幕)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수(將帥)와 막하(幕下)들이 있었던 곳이며, 장막 앞의 궁골(弓谷)은 군사들의 활터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막들의 옆에는 죽마등이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말에게 먹이(죽)를 주는 곳으로 전하여 지고 있으며, 또한 그 앞들이 섬안으로 군량미를 보관하는 곳이었으며, 그 옆에는 치마산(馳馬山)이 있는데 이 곳은 말의 훈련장이었다고 전합니다.

(昆陽郡)을 침략한 후 무(武)와 관련이 많은 곤양군의 군사적 요새인 무고(武庫)를 춤추고 북치고 노는 무고(舞鼓)로 개칭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마을 어귀(신촌)의 큰 바위에는 무고(武庫)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연대 미상) 따라서 무고의 주민들은 무고(舞鼓)가 무고(武庫)로 개칭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마을 중 만점이라는 곳에 가보면 하동군 악양의 최참판댁 가기전 토지의 소재로 나온 평사리 들에 있는 소나무처럼 똑같은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마을 사람들은 '부부송'이라고 부릅니다.

몇해전 한나무가(암그루) 죽어(고사) 버려져 안타깝기도 한곳입니다.

그리고, 만점이라는 마을은, 무고 마을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전란 때 많은 사람들(만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하였다고 하여 만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에 돌너드렁이 많다는 뜻으로 만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